

## 트라우마와 사별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의미통합 척도(K-ISLES): 한국판 타당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이 동 훈                      엄 희 준                      이 덕 희†  
교수                                      석사과정                                      박사수료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고통스러운 사건 경험 이후 개인이 사건에 대해 가지는 의미와 삶의 의미를 통합하였는지를 측정하는 한국판 트라우마와 사별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의미통합 척도(Korean version of Integration of Stressful Life Experience Scale; K-ISLES)를 타당화 하였다. 고통스러운 사건을 트라우마 사건과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 경험으로 나누어서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성인 655명과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을 경험한 성인 1,219명을 더한 총, 1,874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에 대한 K-ISLE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 일치도, 오메가 계수를 검증한 결과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여 K-ISLES가 신뢰로운 척도임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K-ISLES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K-ISLES와 ‘의미 만들기 및 이점 찾기’, ‘사건 중심성 척도’,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 ‘우울증 선별도구’, ‘범불안장애 척도’, ‘간이정신진단 검사-18’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고통스러운 사건의 의미와 삶의 의미의 통합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트라우마 사건, 사별, 한국판 타당화, ISLES, 의미 만들기

\* 본 연구는 SSK사업(연구과제 번호: NRF-2021S1A3A2A02089682)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덕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서울시 중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50204호, Tel: 02-740-1984, E-mail: occb@naver.com

 Copyright ©2022,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한국에서는 COVID-19, 자살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반복되는 실패, 사별과 같은 여러 종류의 고통스러운 사건(Stressful event)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수는 2014년부터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여성가족부, 2021), 2020년에 시작된 COVID-19로 인해 오랜 시간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0). 이에 더해 한국은 2013년 이후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 2위를 차지하여 자살로 사망하는 개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1). 자살 사망자가 많은 만큼 자살로 가까운 이를 상실한 개인도 그 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사건의 경험은 이후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포함하는 개인의 부적응 상태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 사건 경험 이후 개인은 우울, 불안, PTSD 증상, 물질남용, 자살사고, 자살시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0; 김은석, 2021; 박혜옥, 육성필, 2013; Howard, Trevillion, & Agnew-Davis, 2010; Pitman, Osborn, King, & Erlangsen, 2014). 이처럼 성인이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사건 발생 이전처럼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졌다.

고통스러운 사건경험 이후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삶의 의미를 통합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은 여러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Ehlers, & Clark, 2000; Gillies, & Neimeyer, 2006; Van der Kolk, & Van der Hart, 1991). Park(2010)가

제시한 의미만들기 모델(Model of Meaning-Making)에 따르면 통합(또는 의미 만들기)이란 상황적인 의미(Situational meaning, 예. 고통스러운 사건 경험 맥락에서 평가된 의미)와 개인의 전반적인 의미(Global meaning, 예. 자기, 신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의미)를 일치시켜 고통스러운 사건을 개인의 삶 속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Holland, Currier, Coleman, & Neimeyer, 2010). 이러한 통합에 어려움을 겪으면 고통스러운 사건 경험의 기억이 파편화되어 개인의 자전적 기억 형성을 방해하고 이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맥락화 하는 전반적인 자아정체감과 개인의 세계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Foa, & Rothbaum, 1998; Holland et al., 2010). 반면 상황적인 의미와 전반적인 의미 간 불일치를 없애 적절히 통합하는 경우 개인은 개선된 대인 관계를 경험하고 전반적으로 향상된 대처능력을 가지며 삶에 대한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rk, & Helgeson, 2006). 따라서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개인의 적응을 위해서 개인이 고통스러운 사건의 의미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적절히 통합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통합은 이해적 통합(Assimilated integration)과 수용적 통합(Accommodate integration)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Park, 2010). 우선 이해적 통합은 기존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와 세계관을 바꾸지 않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개인의 자아와 세계관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수용적 통합의 경우에는 고통스러운 사건 경험을 기존의 자아와 세계관의 맥락에

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이러한 불일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의 자아와 세계관을 변화시켜 이를 고통스러운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Janoff-Bulman, 1989; Neimeyer, 2006). 이때 수용적 통합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므로 매 순간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히 보내야 한다”와 같이 긍정적인 방향의 수용적 통합은 개인이 자신의 회복탄력성과 역경을 견디는 힘을 재평가하고 통찰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Joseph, & Linley, 2005). 이에 반해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와 같이 부정적인 방향의 수용적 통합의 경우, 변화한 세계관이 개인을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Joseph, & Linley, 2005). 따라서 개인의 적응적인 통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떠한 종류의 통합을 이루었는지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적 통합이나 수용적 통합을 측정하기 위해 국외에서 사용되는 척도들은 의미 만들기과 이점찾기(Sense-Making and Benefit-Finding Question), 역경이해척도(The Making Sense of Adversity Scale; MSAS), 문제경험의 이해척도(The Assimilation of Problematic Experience Scale; APES), 사건중심성 척도(Centrality of Events Scale; CES)가 있다. 우선 의미만들기와 이점찾기는 각각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통합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이다(Davis, Nolen-Hoeksema, & Larson, 1998). 다음으로 MSAS는 1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개인이 역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간결하다는 특징이 있

다(Pan, Fu, Chan, & Lai, 2008). MSAS는 다양한 고통스러운 사건보다는 대인관계 문제와 같은 특정한 고통스러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an et al., 2008). 다음으로 APES는 내담자가 경험한 고통스러운 사건을 확인하고 매회 때마다 내담자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관찰하는 도구로 질적 데이터를 사용한다(Stiles, & Angus, 2001). 마지막으로 CES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고통스러운 사건이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이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측정하며(Berntsen, & Rubin, 2006), 여러 국가에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다(Azadfar, Khosravi, Farah Bijari, & Abdollahi, 2021; Ugwu, Onu, Nnadozie, & Iorfa, 2021; Vermeulen et al., 2019). 국내에서는 조명숙과 이영호(2011)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CES가 사용되고 있다. CES는 트라우마와 사별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의미통합 척도(The Integration of Stressful Life Experience Scale; ISLES)와 동일하게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개인의 자아와 세계관에 대해 다루나, 고통스러운 사건이 개인의 관점을 바꾸어 개인의 가치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수용적 통합을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CES를 제외하고 통합과 관련된 척도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이해적 통합과 수용적 통합 측정을 위해서 보다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통합의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Williams, Skalisky, Erickson, & Thoburn, 2021). 이때 PTG란 삶의 힘든 상황 속에서 이를 이겨내고자 노력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하며(Tedeschi & Calhoun, 1996),

PTG와 우울, 불안은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따라서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PTG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해적 통합 혹은 수용적 통합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적절히 측정하는 척도를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ISLES는 Park(2010)의 의미 만들기 모델을 기반으로 Holland 등(2010)이 개발하였으며, 고통스러운 사건 경험 후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삶의 의미의 통합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이때, 고통스러운 사건이란 (Stressful event)란 ‘일반적인 스트레스 사건’ 혹은 ‘사별’과 같이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의미한다(Holland et al., 2010). ISLES는 수용적 통합(Footing in the world)과 이해적 통합(Comprehensibility), 총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적 통합은 11문항이며, 고통스러운 사건의 경험 이후 개인의 가정, 가치, 또는 기대가 변화하였는지(예. 이 경험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를 주로 측정한다. 반면에 이해적 통합은 5문항이며, 이미 존재하는 개인의 삶의 의미 구조에 고통스러운 사건의 의미가 통합되었는지(예. 나는 이 경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를 측정한다(Holland et al., 2010). 이러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의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ISLES는 이해적 통합과 수용적 통합을 모두 측정하기 때문에 통합의 수준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의미 만들기(통합)를 이루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개인의 통합수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히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ISLES가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ISLES는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다(Currier et al., 2013; Holland et al., 2010; Neimeyer et al., 2021). 또한 ISLES는 개발 당시 고통스러운 사건을 트라우마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으로 대상을 나누어 척도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여 다양한 종류의 고통스러운 사건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원칙도의 경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두 집단 모두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Holland et al., 2010) 스페인어판 타당화 연구(Currier et al., 2013)에서는 트라우마사건을 경험한 엘살바도르에 거주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탈리아판 타당화 연구(Neimeyer et al., 2021)에서는 2년 이내에 사별을 경험한 이탈리아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ISLES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ISLES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ISLES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트라우마와 사별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의미통합 척도(Korean version of Integration of Stressful Life Experiences Scale; K-ISLES)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통합을 측정하는 척도 중 유일하게 국내에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된 CES를 준거 척도로 활용하였다. 원칙도 연구 결과, ISLES는 트라우마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 모두에서 CES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olland et al., 2010). 이에 더해 원칙도 타당화연구와 동일하게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비교해보고자 의미만들기와 이점찾기,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World Assumptions Scale; WAS), 우울, 불안, 신체화, 정신적 디스트레스, 트라우마 디스트레스, 분리 디스트레스를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다. 의미만들기와 이점찾기, WAS를 통해서 개인이 고통스러운 사건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어떻게 통합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 사건 경험과 사별 경험은 우울, 불안, 분노 등 심리적 증상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Forbes et al., 2014; Pitman et al., 2014; Sveen, Bondjers, Heinsoo, & Arnberg, 2020). 이에 따라 우울, 불안, 신체화, 정신적 디스트레스, 트라우마 디스트레스를 측정하여 트라우마 사건 경험과 사별 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ISLES 원척도 연구의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 모두에서 ISLES는 의미 만들기와 이점 찾기, WAS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 불안, 신체화, 정신적 디스트레스, 트라우마 디스트레스, 분리 디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olland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K-ISLES와 CES, 의미만들기와 이점 찾기, WAS, 우울, 불안, 신체화, 정신적 디스트레스, 트라우마 디스트레스, 분리 디스트레스와의 상관을 확인하여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최근 성인들은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연이은 취업실패(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0)와 높은 자살률(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1)로 인한 사별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척도에서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일반적인 스트레스 사건’과 ‘사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고통스러운 사건을 ‘DSM-5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트라우마사건’과 ‘사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 그 사건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통합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은 여러 부적응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러므로 ISLES의 한국판 타당화를 통해 개인이 적응적인 통합을 이루었는지 측정함으로써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개인을 적절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CES를 제외하고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성인에게 적합한 척도의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통스러운 사건(트라우마 사건, 사별)을 경험한 성인을 대상으로 K-ISLES를 타당화 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여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고통스러운 사건의 의미와 삶의 의미 통합을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에서 K-ISLES의 요인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에서 K-ISLES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절한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K-ISLES의 타당화 연구를 위해 고통스러운 사건을 DSM-5에서 제시하는 트라우마 사건과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경험으

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에 대해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K-ISLES의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수집 과정은 아래와 같다. EFA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2019년 7월~8월 경 한 달간 온라인 설문 업체인 ○○○를 통해 국내 인구센서스 기준에 따라 성별 및 연령,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DSM-5의 진단기준 사건에 해당하는 트라우마 사건 유형을 제시하고 그 사건 유형들 중에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에 대해 다중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여기 응답한 사람들을 트라우마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귀하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사별경험을 확인하였으며, 사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사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 응답자 595명 중 429명(72.1%)이 트라우마 집단에 포함되었으며, 337명(56.6%)이 사별 경험집단에 포함되었다. 해당 자료수집에서 설문 소요시간은 약 30분이었으며,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적립금이 제공되었다. 총 84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595명(70.4%)이 모든 설문을 완료하여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CFA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에서는 다른 온라인 설문 업체인 △△△를 통해 국내 인구센서스 기준에 따라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2021년 2월 경 약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두 번째 설문에서는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경험을 질문한 후, 사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을 경우 사별 경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사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을 경우 다른 트라우마 사건 유형에서 트라우마 경험을 체크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으

로 분류되었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30분이었으며,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적립금이 제공되었다. 설문은 총 1,986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1,236명이 설문을 완료하였다. 이 중 36명이 불성실한 응답으로 제외되어 총 1,200명(60.4%)의 온라인 설문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설문응답자 1,200명 중 226명(18.8%)이 트라우마 집단에 포함되었으며, 882명(56.8%)이 사별 경험집단에 포함되었다.

EFA를 위한 설문(SKKU 2015-01-006-014)과 CFA를 위한 설문(SKKU 2020-05-005-001) 모두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수집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트라우마사건의 종류와 사별유형은 표 2와 표 3에 각각 제시하였다.

## 연구 도구

### 일생 사건 체크리스트(Life Events Checklist for DSM-5; LEC-5)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트라우마 사건 확인을 위하여 Weathers 등(2013)이 개발한 LEC-5를 박주언 등(201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7개의 트라우마 사건 문항과 1개의 회복 여부 문항으로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LEC-5의 17개 트라우마 사건에는 교통사고, 화재나 폭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부상, 신체적 폭행, 성폭력, 굶주림과 같은 인간적 고난 등이 포함되어 있다. LEC-5는 참여자들의 사건 경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겪음’, ‘목격함’, ‘알게 됨’, ‘업무 관련 경험’, ‘불확실’의 5가지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트라우마 사건 경험 (n=429)	가까운 사람의 사별 경험 (n=337)	트라우마 사건 경험 (n=226)	가까운 사람의 사별 경험 (n=882)
	빈도(%)	빈도(%)	빈도(%)	빈도(%)
<b>성별</b>				
남성	235(54.8%)	183(54.3%)	114(50.4%)	441(50.0%)
여성	194(45.2%)	154(45.7%)	112(49.6%)	441(50.0%)
<b>연령</b>				
20대	81(18.9%)	55(16.3%)	55(24.3%)	110(12.5%)
30대	118(27.5%)	89(26.4%)	50(22.1%)	138(15.6%)
40대	149(34.7%)	109(32.3%)	43(19.0%)	174(19.7%)
50대 이상	81(18.9%)	84(24.9%)	77(34.5%)	460(52.2%)
<b>거주지역</b>				
서울·경기·인천	214(49.9%)	163(48.4%)	123(54.4%)	467(52.9%)
경상	102(23.7%)	81(23.9%)	58(25.6%)	216(24.5%)
전라	48(11.3%)	36(10.7%)	14(6.2%)	77(8.7%)
충청	44(10.2%)	39(11.6%)	24(10.7%)	90(10.1%)
강원·제주	22(4.9)	18(5.4%)	7(3.1%)	32(3.6%)
<b>최종학력</b>				
중졸 이하	1(0.2%)	2(0.6%)	2(0.9%)	9(1.0%)
고졸	53(12.4%)	47(13.9%)	42(18.6%)	142(16.1%)
대학교 재학	19(4.4%)	11(3.3%)	15(6.6%)	31(3.5%)
대졸	304(70.9%)	235(69.7%)	136(60.25)	569(64.5%)
대학원 재학	11(2.6%)	8(2.4%)	5(2.2%)	8(0.9%)
대학원 졸업	40(9.3%)	32(9.5%)	26(11.5%)	123(13.9%)
기타	1(0.2%)	2(0.6%)	0(0.0%)	0(0.0%)
<b>월 평균 소득</b>				
200만원 미만	90(21%)	78(23.1%)	62(27.5%)	188(21.3%)
200만원~500만원 미만	246(57.3%)	183(54.3%)	112(49.5%)	507(57.5%)
500만원~800만원 미만	70(16.3%)	60(17.8%)	28(12.4%)	122(13.8%)
800만원 이상	11(2.6%)	8(2.4%)	8(3.5%)	33(3.7%)
해당사항 없음	12(2.8%)	8(2.4%)	16(7.1%)	32(3.6%)
<b>혼인여부</b>				
미혼	171(39.9%)	120(35.6%)	94(41.6%)	227(25.7%)
기혼	240(55.9%)	198(58.8%)	120(53.1%)	582(66.0%)
이혼/사별	17(4.0%)	19(5.6%)	10(4.5%)	66(7.4%)
기타	1(0.2%)	0(0.0%)	2(0.8%)	7(0.8%)
<b>자녀유무</b>				
있다	223(52.0%)	189(56.1%)	121(53.5%)	597(67.7%)
없다	206(48.0%)	148(43.9%)	105(46.5%)	285(32.3%)
<b>거주형태</b>				
혼자 거주	52(12.1%)	45(13.4%)	28(12.4%)	121(13.7%)
가족과 거주	363(84.6%)	283(84.0%)	195(86.3%)	741(84.0%)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거주	14(3.3%)	9(2.7%)	2(0.9%)	19(2.2%)
기타	0(0.0%)	0(0.0%)	1(0.4%)	1(0.1%)
<b>종교유무</b>				
있다	208(48.5%)	156(46.3%)	100(44.2%)	441(50.0%)
없다	221(51.5%)	181(53.7%)	126(55.8%)	441(50.0%)

표 2. 연구참여자의 트라우마사건 경험 종류

트라우마사건 종류	탐색적 요인분석 (n=429)	확인적 요인분석 (n=226)
	빈도(%)	빈도(%)
1. 자연재난 (예: 홍수, 태풍, 폭풍, 지진)	12(2.8)	28(12.4)
2. 화재 또는 폭발	8(1.9)	4(1.8)
3. 교통사고 (예: 자동차 사고, 선박 사고, 기차 사고, 비행기 추락)	29(6.8)	21(9.3)
4. 직장, 집 또는 여가 활동 중 심한 사고	7(1.6)	1(0.4)
5. 독성 물질에 노출(예: 유독성 화학물질, 방사능)		
6. 신체폭력 (예: 공격당하거나, 가격당하거나, 따귀를 맞거나, 발로 채이거나 두들겨 맞음)	16(3.7)	6(2.7)
7. 무기로 공격당함(예: 총이나 칼에 맞거나, 칼·총·폭탄으로 위협 당함)	1(0.2)	-
8. 성폭력(강간, 강간 미수, 완력이나 위협 하에 어떤 종류 간에 성적 행위를 하게 함)	4(0.9)	-
9. 기타 원하지 않았거나 불편했던 성적 경험	4(0.9)	5(2.2)
10. 전투나 전쟁터에 노출 (군 근무 또는 민간인으로서)	-	1(0.4)
11. 감금 (예: 납치, 유괴, 인질, 전쟁 포로)	-	1(0.4)
12. 목숨이 좌우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	17(4.0)	13(5.8)
13. 심한 인간적 고난 (예: 강제 노동, 지속적인 굶주림 또는 식량 부족, 고문, 지속적인 노숙상태, 고문)	-	1(0.4)
14. 급작스러운 변사(예: 살인, 자살)	9(2.1)	-
15.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	75(17.5)	-
16. 본인 때문에 타인의 심한 부상, 상해 혹은 죽음	1(0.2)	-
17. 그 밖의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이나 경험	244(56.9)	145(64.2)

항목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칙도 타당화 연구에서 일반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직접 경험한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사건에 대해 ‘직접 겪음’에 응답한 대상자를 트라우마 사건 경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판 트라우마와 사별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의미통합 척도(Korean version of Integration of Stressful Life Experiences Scale; K-ISLES)**

본 연구에서는 Holland 등(2010)이 개발한 고통스러운 사건 경험의 통합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K-ISLES의 타당화를 위해 사전 저작권



표 3. 연구참여자의 사별 경험 종류

	탐색적 요인분석 (n=337)				확인적 요인분석 (n=882)			
	급작스럽고 끔찍한 변사	급작스러운 사고사	급성질환 등으로 예기치 못한 죽음	예상된 죽음	급작스럽고 끔찍한 변사	급작스러운 사고사	급성질환 등으로 예기치 못한 죽음	예상된 죽음
	빈도(%)				빈도(%)			
<b>고인과의 관계</b>								
배우자	1(4.8)	0(0.0)	1(0.9)	0(0.0)	1(1.0)	1(0.6)	10(4.1)	11(2.9)
자녀	0(0.0)	1(2.4)	0(0.0)	0(0.0)	1(1.0)	5(3.1)	0(0.0)	0(0.0)
아버지	3(14.3)	7(16.7)	34(29.8)	45(28.1)	8(7.8)	17(10.4)	48(19.8)	100(26.7)
어머니	2(9.5)	2(4.8)	20(17.5)	17(10.6)	7(6.9)	9(5.5)	29(12.0)	68(18.1)
형제, 자매	2(9.5)	5(11.9)	5(4.4)	7(4.4)	13(12.7)	21(12.9)	24(9.9)	24(6.4)
조부모	1(4.8)	1(2.4)	14(12.3)	47(29.4)	3(2.9)	13(8.0)	22(9.1)	90(24.0)
친구	4(19.0)	8(19.0)	10(8.8)	10(6.3)	19(18.6)	41(25.2)	28(11.6)	15(4.0)
연인	0(0.0)	2(4.8)	0(0.0)	0(0.0)	0(0.0)	0(0.0)	3(1.2)	0(0.0)
기타	8(38.1)	16(38.1)	30(26.3)	9(5.6)	50(49.0)	56(34.4)	78(32.2)	67(17.9)
<b>사별경험 후 기간</b>								
1년 미만	0(0.0)	2(4.8)	10(8.8)	9(5.6)	9(8.8)	6(3.7)	25(10.3)	40(10.7)
1년 이상 2년 미만	3(14.3)	3(7.1)	14(12.3)	13(8.1)	12(11.8)	11(6.7)	24(9.9)	22(5.9)
2년 이상 3년 미만	2(9.5)	1(2.4)	13(11.4)	14(8.8)	10(9.8)	6(3.7)	24(9.9)	39(10.4)
3년 이상 4년 미만	2(9.5)	1(2.4)	9(7.9)	14(8.8)	7(6.9)	7(4.3)	29(12.0)	23(6.1)
4년 이상 5년 미만	0(0.0)	1(2.4)	5(4.4)	10(6.3)	5(4.9)	9(5.5)	11(4.5)	17(4.5)
5년 이상 6년 미만	0(0.0)	1(2.4)	10(8.8)	10(6.3)	3(2.9)	14(8.6)	14(5.8)	29(7.7)
6년 이상 7년 미만	1(4.8)	2(4.8)	4(3.5)	7(4.4)	8(7.8)	4(2.5)	9(3.7)	11(2.9)
7년 이상 8년 미만	1(4.8)	2(4.8)	2(1.8)	5(3.1)	2(2.0)	3(1.8)	6(2.5)	17(4.5)
8년 이상 9년 미만	0(0.0)	1(2.4)	4(3.5)	5(3.1)	2(2.0)	4(2.5)	7(2.9)	12(3.2)
9년 이상 10년 미만	0(0.0)	0(0.0)	3(2.6)	4(2.5)	4(3.9)	12(7.4)	9(3.7)	9(2.4)
10년 이상	12(57.1)	28(66.7)	40(35.1)	69(43.1)	40(39.2)	87(53.4)	84(34.7)	156(41.6)
<b>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별 경험</b>	21(1.8)	42(3.7)	114(10.0)	160(14.1)	102(11.6)	163(18.5)	242(27.4)	375(42.5)

자인 Holland로부터 타당화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척도 번안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 가능하고 트라우마와 사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박사과정생 2명이 두벌번역하였으며, 두 개의 번역자료를 통합하여 최종 번역안을 제작하였다. 이를 트라우마와 사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교수 1명이 역번역한 후, 최종 문항에 대해 15명의 석·박사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행 및 면담을 실시하여 문항을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ISLES는 고통스러운 사건 경험 이후 사건에 대한 개인적 의미와 전체적 의미 사이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16문항(예. 이 경험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 경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1점(매우 동의)부터 5점(매우 동의하지 않음)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Holland 등의 연구(2010)에서 트라우마 사건경험자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2였으며, 가까운 사람의 사별 경험자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4였다. 본 연구에서 트라우마 사건 경험 집단의 K-ISLES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6이었으며, 가까운 사람의 사별 경험 집단의 K-ISLES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6였다.

#### **의미 만들기과 이점 찾기(Sense-Making and Benefit-Finding Question)**

본 연구에서는 K-ISLES와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Davis 등(1998)과 Currier, Holland와 Neimeyer(2006)가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Holland 등(2010)이 ISLES 개발 과정에서 사용한 질문을 사용하였다. 질문은 본 연구의 ISLES 번역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번역

후 사용하였다. 의미 만들기(Sense-Making Question)는 ‘본인이 경험한 힘들었던 일이나 어려움을 얼마나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평가되었으며, 1점(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부터 5점(상당히 이해했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점 찾기(Benefit-Finding Question)는 ‘이번 경험에서 당신은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라는 질문으로 평가되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상당히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 **단축형 사건중심성 척도(A brief version of the Centrality of Events Scale; CES)**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사건이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이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K-ISLES와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Berntsen과 Rubin(2006)이 개발한 단축형 사건중심성 척도(A brief version of the Centrality of Events Scale, CES)를 사용하였다. CES는 총 7문항으로 1점(전혀 일치하지 않음)부터 5점(정확히 일치함)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명숙, 이영호(2011)가 국내 타당화한 CES(20문항)에서 단축형 문항인 7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Berntsen과 Rubin(2006)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트라우마 사건 경험 집단의 CES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으며, 가까운 사람의 사별 경험 집단의 CES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2였다.

####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World Assumptions Scale, WAS)**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념과 태도를 측정

함으로써 K-ISLES와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Janoff-Bulman(1989)이 개발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World Assumptions Scale, WA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번안은 본 연구의 ISLES 번역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번역 후 사용하였다. WAS는 8요인으로 각각 4문항, 총 32문항으로 구성된다. WAS는 ‘우호성(benevolence)’, ‘의미감(meaningfulness)’, ‘자기 가치감(self-worth)’의 주요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우호성’은 ‘세상에 대한 우호성’, ‘타인에 대한 우호성’으로, ‘의미감’은 ‘정의’, ‘통제성’, ‘무선성’으로, ‘자기 가치감’은 ‘자기 가치감’, ‘자기 통제감’, ‘행운’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척도는 1점(매우 아니다)부터 6점(매우 그렇다)까지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의 WAS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7이었으며, 가까운 사람의 사별 경험집단의 WAS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우울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K-ISLES와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Spitzer, Kroenke, Williams과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rimary Care Study Group(1999)이 개발한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박승진, 최혜라, 최지혜, 김건우, 홍진표(2010)가 국내 타당화한 한국판 PHQ-9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PHQ-9은 DSM-IV의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과 일치하는 우울을 측정하는 9문항으로 구성된다. 척도는 0점(전혀 없음)부터 3점(거의 매일)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박승진 등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의 PHQ-9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9, 가까운 사람의 사별 경험집단의 PHQ-9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한국형 범불안장애 척도(Korean version of 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K-GAD-7)**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불안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K-ISLES와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Spitzer, Kroenke, Williams와 Lowe(2006)이 개발한 범불안장애 척도(Generalized Anxiety Disorder-7)를 Seo와 Park(2015)이 국내 타당화한 한국형 범불안장애 척도(Korean version of 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 K-GAD-7)를 사용하였다. K-GAD-7은 불안 관련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측정하는 7문항으로 구성된다. 척도는 0점(전혀 방해 받지 않음)부터 3점(거의 매일 방해 받음)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Seo와 Park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의 GAD-7 척도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1, 가까운 사람의 사별 경험집단의 GAD-7 척도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간이정신진단 검사-18(Brief Symptom Inventory-18, BSI-18)**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신체화 증상을 측정함으로써 K-ISLES와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Derogatis(2001)이 축약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Brief Symptom Inventory, BSI-18)를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2012)이 국내 타당화한 한국판 BSI-18을 사용하였다. BSI-18은 3요인으로 신체화, 불안, 우울 각 6문항씩 총 18문

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척도는 0점(전혀 없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SI-18의 하위요인 중 신체화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Derogatis (2001)의 연구에서 신체화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74였으며, 본 연구에서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의 BSI-18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0, 가까운 사람의 사별 경험집단의 BSI-18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간이증상진단검사-10-개정판(The Symptom Checklist-10-Revised, SCL-10-R)**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전반적인 정신적 디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K-ISLES와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Rosen 등(2000)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10-개정판(The Symptom Checklist-10-Revised, SCL-10-R)을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척도는 본 연구의 ISLES 번역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번역 후 사용하였다. SCL-10-R은 공포불안, 적대감, 우울, 대인예민성, 편집증, 강박증, 신체화, 불안, 우울, 정신증을 측정하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척도는 0점(전혀 없다)부터 4점(아주 심하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의 SCL-10-R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3, 가까운 사람의 사별 경험집단의 SCL-10-R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 **한국판 지속비애 척도(K-Prolonged Grief Disorder, K-PG-13)**

본 연구에서는 사별 경험 이후 나타나는 지속비애 증상 측정함으로써 K-ISLES와의 공

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Prigerson 등(2009)이 개발한 지속비애 척도(Prolonged Grief Disorder, PG-13)를 강현숙, 이동훈(2017)이 타당화한 한국판 지속비애 척도(K-Prolonged Grief Disorder, K-PG-13)를 사용하였다. K-PG-13은 기능 손상 정도(1문항), 지속기간(1문항), 분리 디스트레스(4문항), 트라우마성 디스트레스(7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 총 13문항으로 구성된다. 척도에서 기능 손상 정도와 지속기간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외한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로 측정되었으며, 기능 손상 정도와 지속기간에 대한 질문은 '예', '아니오'의 범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Prigerson 등(2009)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 가까운 사람의 사별 경험집단의 K-PG-13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ISLES의 타당화를 위해 SPSS 21.0과 Mplus 8.0가 사용되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설문 자료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트라우마 사건 경험, 가까운 사람의 사별 경험 관련 변인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각 설문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셋째, 각 설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합도,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확인하였다. 넷째, 첫 번째 설문 자료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시행하였다. 요인추출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사각회

전(Direct oblimin)을 실행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값과 스크리 도표, 해석 가능성, 평행성 분석(Parallel analysis), 요인 부하량을 통해 결정하였다. 다섯째, 두 번째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EFA에서 확인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확인하였다. 여섯째,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와 오메가 계수를 확인하였다. 이때, 내적일치도는 타우동등(Tau-equivalence)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심리학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타우동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가 과소 혹은 과대추정될 수 있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메가 계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일곱째,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ISLES의 원문문을 바탕으로 변인을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사건 경험 집단과 사별 경험 집단 모두 '의미 만들기', '이점 찾기', 'CES', '우호성', '의미감', '자기 가치감', '우울', '불안', '신체화'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사별 경험집단의 경우 통합의 수준과 지속비애의 수준이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Milman et al., 2019)를 바탕으로 사별로 인해 겪는 디스트레스를 확인하기 위해 '트라우마적 디스트레스'와 '분리 디스트레스'와의 상관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 결 과

### 집단 간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 간 ISLES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사별 경험집단( $M=3.94, SD=0.75$ )이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 $M=3.40, SD=0.84$ )보다 ISLES의 총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8.71, p<.001$ ).

### K-ISLES의 기술통계 및 문항-총점 간 상관

K-ISLES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총점과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문항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 미만으로 일변량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Curran, West, & Finch, 1996) 총점과 문항 간 상관관계가 모두 .40 이상으로 유의하여( $p<.05$ ) 모든 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K-ISLE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EFA를 실시하기 전 설문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합도,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하였다. 집단별 KMO 표본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의 KMO 적합도 지수는 .97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chi^2=5869.56, df=120, p<.001$ )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aiser,

표 4.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 간 변인 차이

변인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 <i>n</i> =882)		사별 경험집단 ( <i>n</i> =226)		<i>t</i>	<i>p</i>
	<i>M</i>	<i>SD</i>	<i>M</i>	<i>SD</i>		
	ISLES 총점	3.40	0.84	3.94		

표 5. EFA 대상에 대한 기술통계 및 총점-문항 간 상관

문항	트라우마 사건 경험 대상					사별 경험 대상				
	<i>M</i>	<i>SD</i>	왜도	첨도	문항-총점 상관	<i>M</i>	<i>SD</i>	왜도	첨도	문항-총 점 상관
V1	3.67	1.05	-0.35	-0.65	.81**	3.69	1.03	-0.39	-0.57	.82**
V2	3.47	1.04	0.00	-0.86	.40**	3.47	1.03	-0.01	-0.84	.45**
V3	3.48	1.06	-0.26	-0.56	.75**	3.54	1.04	-0.29	-0.51	.76**
V4	3.62	1.05	-0.37	-0.53	.82**	3.64	1.04	-0.34	-0.62	.82**
V5	3.68	1.07	-0.45	-0.46	.83**	3.71	1.06	-0.45	-0.49	.84**
V6	3.70	1.10	-0.50	-0.48	.75**	3.76	1.07	-0.52	-0.41	.79**
V7	3.78	1.06	-0.59	-0.29	.85**	3.80	1.09	-0.61	-0.33	.86**
V8	3.41	1.18	-0.14	-0.94	.77**	3.45	1.17	-0.16	-0.93	.79**
V9	3.68	1.05	-0.37	-0.63	.81**	3.72	1.04	-0.35	-0.70	.85**
V10	3.49	1.11	-0.22	-0.81	.71**	3.53	1.09	-0.21	-0.84	.74**
V11	3.71	1.04	-0.37	-0.68	.86**	3.71	1.05	-0.40	-0.68	.88**
V12	3.86	1.03	-0.61	-0.33	.85**	3.85	1.03	-0.56	-0.42	.86**
V13	3.76	1.11	-0.53	-0.57	.85**	3.78	1.11	-0.53	-0.62	.87**
V14	3.68	1.10	-0.41	-0.68	.86**	3.72	1.10	-0.45	-0.61	.88**
V15	3.80	1.05	-0.48	-0.70	.88**	3.80	1.06	-0.51	-0.61	.88**
V16	3.72	1.11	-0.46	-0.68	.85**	3.72	1.10	-0.46	-0.63	.85**

\**p*<.05, \*\**p*<.01

표 6. 고유치(scree test) 및 누적분산비율

요인	트라우마 사건 경험			사별 경험		
	고유치	분산 비율	누적분산 비율	고유치	분산 비율	누적분산 비율
1	10.19	0.64	0.64	10.59	0.66	0.66
2	0.94	0.06	0.70	0.88	0.06	0.72
3	0.80	0.05	0.75	0.71	0.04	0.76

1974). 또한 사별 경험집단의 KMO 적합도 지수는 .97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chi^2=4943.10$ ,  $df=120$ ,  $p<.001$ )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Kaiser, 1974).

K-ISLES의 요인 수 결정을 위하여 고유치(eigenvalue), 누적분산비율, 평행성분석 및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고유치 검사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에 대해 각각 요인변화에 따른 고유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1요인에서 2요인으로 변화할 때 고유치

가 급격히 변화하였고 2요인부터 고유치의 변화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유치가 완만해지기 전인 1요인이 두 집단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누적 비율 .50 이상일 경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Hair et al., 1995) 1요인이 0.64로 나타나 1요인부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평행성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에서 2요인의 무선자료 고유치분산이 경험자료 고유치분산보다 크게 나타나 두 집단 모두 1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평행성

표 7. 평행성분석 결과

요인	트라우마사건 경험		사별 경험	
	경험자료 고유치 분산(%)	무선자료 고유치 분산(%)	경험자료 고유치 분산(%)	무선자료 고유치 분산(%)
1	69.9	12.6	68.7	12.6
2	5.5	11.6	5.8	11.6
3	4.2	10.7	5.3	10.7
4	3.3	9.9	3.6	9.9
5	3.2	9.0	3.3	9.0
6	2.5	8.2	2.7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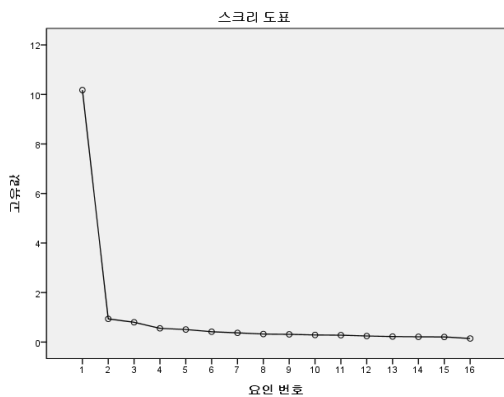


그림 1.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 K-ISLES의 스크리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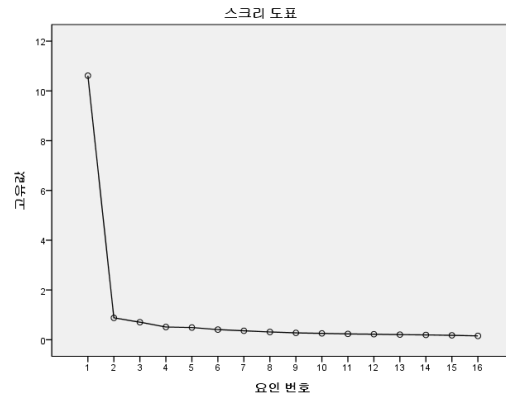


그림 2. 사별 경험집단 K-ISLES의 스크리 도표

분석은 요인구조가 있는 경험자료를 바탕으로 한 축소상관행렬의 고유치가 큰 분산을 나타내야 하므로 요인구조가 들어있지 않은 무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축소상관행렬의 고유치보다 커야 한다.

EFA의 요인추출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사각 회전인 직접 오블리민 회전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도표 결과는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요인의 수는 고유값과 스크리 도표, 해석 가능성, 요인 부하량을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 모두 1요인의 초기 고유값이 1이 넘었으나, 2요인에서 1을

넘지 못하였으며 스크리 도표 확인 결과 1요인 이후 2요인부터 고유값 차이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트라우마사건 경험 집단과 사별 경험 집단 모두 1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FA 요인부하량은 표 7에 제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2번 문항(나는 이 경험을 받아들였다)의 요인부하량이 두 집단 모두에서 .4 이하로 나타나 삭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EFA를 통해 구성된 요인구

표 8. K-ISLE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트라우마 사건 경험 대상		사별 경험 대상	
	16문항	15문항(2번 제외)	16문항	15문항(2번 제외)
	요인 1	요인 1	요인 1	요인 1
V1	.79	.79	.80	.80
V2	.33	-	.39	-
V3	.71	.71	.72	.72
V4	.79	.79	.80	.80
V5	.81	.81	.81	.81
V6	.72	.72	.77	.77
V7	.84	.84	.85	.85
V8	.73	.73	.76	.76
V9	.82	.82	.85	.85
V10	.68	.67	.71	.70
V11	.86	.86	.88	.88
V12	.85	.85	.86	.86
V13	.85	.85	.87	.87
V14	.86	.86	.88	.88
V15	.89	.89	.89	.89
V16	.85	.85	.84	.84



표 9. K-ISLES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집단	모형	$\chi^2$	df	p	CFI	TLI	RMSEA
트라우마사건 경험	1요인 모형	1276.46	90	.000	.98	.98	.12(.12-.13)
	2요인 모형 (원척도)	1209.14	89	.000	.98	.98	.12(.11-.13)
사별 경험	1요인 모형	622.70	90	.000	.95	.94	.16(.15-.17)
	2요인 모형 (원척도)	606.06	89	.000	.95	.95	.16(.15-.17)

조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원척도의 요인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먼저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의 CFA 결과, 1요인 모형의  $\chi^2$  값은 1276.46(df=90,  $p < .001$ , CFI = .98, TLI = .98, RMSEA = .12(.12-.13))로 나타났으며 원척도 모형인 2요인 모형의 CFA 결과  $\chi^2$  값은 1209.14(df=89,  $p < .001$ , CFI = .98, TLI = .98, RMSEA = .12(.11-.13))로 나타났다. 사별 경험집단의 CFA 결과, 1요인 모형의  $\chi^2$  값은 622.70(df=90,  $p < .001$ , CFI = .95, TLI = .94, RMSEA = .16(.15-.17))로 나타났으며 원척도 모형인 2요인 모형의 CFA 결과  $\chi^2$  값은 606.06(df=89,  $p < .001$ , CFI = .95, TLI = .95, RMSEA = .16(.15-.17))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의 RMSEA 값이 높았으나, CFI와 TLI 값이 수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에서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

로 판단하였다.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K-ISLES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alpha$ )와 오메가 계수( $\omega$ )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alpha$ )를 확인한 결과,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의 Cronbach'  $\alpha$ 는 .95이었으며, 사별 경험집단의 Cronbach'  $\alpha$ 는 .96으로 나타났다. 오메가 계수( $\omega$ )를 산출한 결과,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의 오메가 계수( $\omega$ )는 .95였으며, 사별 경험집단의 오메가 계수( $\omega$ )는 .9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오메가 위계계수( $\omega_H$ )를 확인한 결과,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의 오메가 위계계수( $\omega_H$ )는 .95으로 나타났으며 사별 경험집단의 오메가 위계계수( $\omega_H$ ) .96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적 일치도는 .70 이상(Kline, 2013), 오메가 계수는 .60 이상(Bagozzi & Yi, 1988)으로 K-ISLES의 신뢰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0. 내적일치도 계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오메가 계수

집단	내적일치도 계수	오메가 계수( $\omega$ )	오메가 위계계수( $\omega_H$ )
트라우마 사건 경험	.95	.95	.95
사별 경험	.96	.96	.96

표 11. K-ISLES와 변인 간의 상관계수(트라우마 사건경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K-ISLES	-	.02	.12	-.51**	-.13*	.04	-.11	-.55**	-.52**	-.45**	-.57**
2. 의미만들기		-	.44**	.25**	.30**	.14*	.29**	-.03	.01	-.07	-.03
3. 이점찾기			-	.31**	.37**	.22**	.40**	-.16*	-.16*	-.07	-.10
4. CES				-	.32**	.05	.32**	.31**	.29**	.22**	.35**
5. 우호성					-	.56**	.72**	-.05	-.03	-.01	-.01
6. 의미감						-	.76**	.05	.11	.05	.08
7. 자기 가치감							-	-.01	.05	.02	.01
8. 우울								-	.74**	.65**	.76**
9. 불안									-	.60**	.74**
10. 신체화										-	.76**
11. 정신적 디스트레스											-

\* $p < .05$ , \*\* $p < .01$

표 12. K-ISLES와 변인 간의 상관계수(사별 경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K-ISLES	-	.02	.01	-.53**	-.08*	.06	-.07*	-.44**	-.46**	-.49**	-.55**	-.72**	-.57**
2. 의미만들기		-	.57**	.24**	.26**	.24	.23**	-.03	-.03	-.02	-.04	-.05	-.02
3. 이점찾기			-	.34**	.26**	.28	.30**	-.07	-.02	-.02	-.05	-.04	.01
4. CES				-	.21**	.05	.23**	.22**	.26**	.25**	.29**	.44**	.41**
5. 우호성					-	.55	.69**	-.07*	-.04	-.01	-.04	.04	.06
6. 의미감						-	.50**	-.16**	-.13**	.04	-.14**	-.09**	-.00
7. 자기 가치감							-	.01	.04	.07*	.02	.07*	.07
8. 우울								-	.75**	.67**	.81**	.47**	.36**
9. 불안									-	.64**	.78**	.50**	.37**
10. 신체화										-	.75**	.46**	.43**
11. 정신적 디스트레스											-	.57**	.44**
12. 트라우마적 디스트레스												-	.64**
13. 분리 디스트레스													-

\* $p < .05$ , \*\* $p < .01$

### 공인타당도 검증

K-ISLES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공인타당도를 확인한 결과는 표 11과 표 12과 같다. 공인타당도 검증은 ISLES의 원 논문을 바탕으로 ‘의미 만들기’, ‘이점 찾기’, ‘CES’, ‘우호성’, ‘의미감’, ‘자기 가치감’, ‘우울’, ‘불안’, ‘신체화’ 통해 두 집단 모두에서 확인하였으며, 사별 경험집단의 경우 ‘트라우마적 디스트레스’와 ‘분리 디스트레스’와의 상관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공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의 K-ISLES는 ‘CES( $r=-.51, p<.01$ )’, ‘우호성( $r=-.13, p<.05$ )’, ‘우울( $r=-.55, p<.01$ )’, ‘불안( $r=-.52, p<.01$ )’, ‘신체화( $r=-.45, p<.01$ )’, ‘정신적 디스트레스( $r=-.57, p<.01$ )’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 경험집단의 K-ISLES는 ‘CES( $r=-.53, p<.01$ )’, ‘우호성( $r=-.08, p<.05$ )’, ‘자기 가치감( $r=-.07, p<.05$ )’, ‘우울( $r=-.44, p<.01$ )’, ‘불안( $r=-.46, p<.01$ )’, ‘신체화( $r=-.49, p<.01$ )’, ‘정신적 디스트레스( $r=-.55, p<.01$ )’, ‘트라우마적 디스트레스( $r=-.72, p<.05$ )’, ‘분리 디스트레스( $r=-.57, p<.05$ )’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Holland 등(2010)이 고통스러운 사건 경험 후 개인이 고통스러운 사건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통합하였는지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ISLES를 한국에서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이때, 고통스러운 사건을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사건과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 경

험으로 나누었다. 이를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여(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 사별 경험집단) 각 집단에 따른 K-ISLE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을 대상으로 EFA와 CFA를 통해 K-ISLE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이때,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EF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 모두 1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 모두 2번 문항(나는 이 경험을 받아들였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되었으며, 그 외의 문항은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사건에 대한 인지과정모델(A Cognitive Processing Model)을 통해 고통스러운 사건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여러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회피 반응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스스로 통합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다(Creamer, Burgess, & Pattison, 1992). 이처럼 개인이 고통스러운 사건의 의미와 삶의 의미 간 일치를 알아차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ISLES의 원저자인 Holland 등(2010)은 원척도 개발 시 개인의 삶의 의미와 고통스러운 사건의 의미 간 일치와 관련된 문항보다는 주로 불일치와 관련된 문항으로 ISLES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긍정형 문항인 2번 문항은 사건의 의미와 삶의 의미가 통합되었는지를 측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삭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요인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CFA를 실시한 결과, K-ISLES는 EFA와 같이 1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척도 연구(Holland et al., 2010)와 동일하게 2요인 구조도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EFA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이탈리아판 타당화 연구(Neimeyer et al., 2021)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1요인 구조는 원척도 개발 논문(Holland et al., 2010)과 스페인어판 타당화 연구(Currier et al., 2013)의 2요인 구조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원척도 연구의 경우, 트라우마사건과 사별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가 진행되었으며, 스페인판 타당화연구는 사별을 경험한 선생님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탈리아판 타당화연구는 2년 이내에 사별을 경험한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각각 연구대상, 경험한 사건과 연령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ISLES의 문항들이 개인의 내적 경험인 의미통합에 관해 측정하므로 문항 해석에 있어서 연구대상이 경험한 사건의 종류나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적 차원의 관점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Uncertainty Avoidance)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허유희, 2018).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란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불안에 대처하려는 정도를 말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회피가 높은 국가일수록 변화에 관용적이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허유희, 2018; Rhyné, Teagarden, & Panhuyzen, 2002).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의 수준이 높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우 예기치 못한 고통스러운 사건 경험 후 이러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를 회피하려 하여 개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통합을 이루어 이해적 통합과 수용적 통합으로 K-ISLES의 요인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ISLES와 유사하게 “트라우마 사건이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이야기 전반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CES의 타당화 연구들에서도 문화적 맥락과 대상에 따라 상이한 요인구조가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ES 원척도 연구(Berntsen, & Rubin, 2006)와 심리학과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판 타당화 연구(Vermeulen et al., 2019)에서는 1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기 성적 학대 생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타당화 연구(Robinaugh, & McNally, 2011)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브라질판 타당화 연구(Gauer, Souza, Silveira, & Sedyama, 2013)에서는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타당화 연구(조명숙, 이영호, 2011)에서는 1-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ISLES도 문화적 맥락과 연구대상에 따라 문항 해석의 양상이 다를 수 있고 그 결과 상이한 요인구조를 보일 수 있다. 원척도의 요인구조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트라우마 사건 혹은 사별을 경험한 개인을 각각 구분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고통스러운 사건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담 및 임상 장면에서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개인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K-ISLES의 신뢰도 검

증을 위하여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에 대해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와 오메가 계수( $\omega$ ), 오메가 위계지수( $\omega_H$ )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와 오메가 계수( $\omega$ ), 오메가 위계지수( $\omega_H$ )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SLES 원척도 연구(Holland et al., 2010)와 스페인어판(Currier et al., 2013), 이탈리아판(Neimeyer et al., 2021) 타당화 연구에서 적절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를 보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K-ISLES가 고통스러운 사건 경험 후 개인이 고통스러운 사건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통합하였는지에 관해 성인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측정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K-ISLES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상관분석을 통해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에서 각각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트라우마 사건 경험집단의 경우, K-ISLES와 CES, 우울, 불안, 신체화, 정신적 디스트레스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을 확인하였으나 의미 만들기, 이점 찾기, 의미감, 자기가치감은 K-ISLES와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별 경험집단의 경우, K-ISLES와 CES, 우울, 불안, 신체화, 정신적 디스트레스, 트라우마적 디스트레스, 분리 디스트레스 간 유의한 부적상관을 확인하였으나 의미 만들기, 이점 찾기, 의미감은 K-ISLES와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K-ISLES의 공인타당도 검증 결과에서 나타난 유의한 부적상관은 ISLES 원척도 연구(Holland et al., 2010), 스페인어판(Currier et al., 2013), 이탈리아판(Neimeyer et al., 2021) 타당화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

구는 K-ISLES가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되기에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연구 결과, 적절한 내적 일치도와 오메가 계수,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여 한국인에게 적합한 척도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고통스러운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삶의 의미의 통합과 관련된 후속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트라우마사건 경험 집단과 사별 경험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검증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고통스러운 사건에 모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사건 혹은 사별을 경험한 집단의 연령이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으로 아동, 청소년, 노년층이 제외되어 모든 연령층에 대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연령대에 관한 일반화를 위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ISLES는 문화적 맥락과 대상의 영향을 받아 요인구조가 다르게 확인되는 것으로 유추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비교 연구를 실시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가 요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로만 데이터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응답자의 편향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가 면담과 같은 여러 종류의 자료수집 방법을 추가로 사용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EFA 데이터의 경우 설문이 다중응답으로 이루어져 트라우마사건 경험집단과 사별 경험집단의 데이터가 중복된다는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집단 간 데이터

가 중복되지 않게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CFA의 사별 경험집단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사별경험 기한과 무관하게 사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사별경험 기한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K-ISLES의 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EFA를 위한 자료수집과 CFA를 위한 자료수집 사이에 공백이 길고 수집 기간 사이에 발생한 COVID-19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간 공백을 줄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현숙, 이동훈 (2017). 한국판 지속비에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1027-1052.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0). *코로나19와 청년 노동 실태*.
- 박주언, 김원형, 노대영, 원성두, 김하경, 강석훈, 홍나래, 박성용, 김대호, 채정호 (2016). *재난 정신건강평가 워크북*, 대학불안의학회지.
- 김은석 (2021).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대학생의 우울 간의 관계: 자기자비로 조절된 자기냉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651-1669.
-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 (2012). 대학생 집단을 통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 (BSI-18)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507-521.
- 박승진, 최혜라, 최지혜, 김건우, 홍진표 (2010).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신뢰도와 타당도. *대한불안학회지*, 6(2), 119-124.
- 박혜옥, 육성필 (2013). 부부친밀감에 따른 배우자 사별노인의 사별스트레스가 우울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재-매개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933-951.
-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1). *2021 자살예방백서*.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여성가족부 (2021). *가정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 조명숙, 이영호 (2011). 사건중심성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63-774.
- 허유희 (2018).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적 차원의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이탈리아어문학*, (54), 247-269.
- Azadfar, Z., Khosravi, Z., Farah Bijari, A., & Abdollahi, A. (2021). The Persian version of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 (CES): Assessmen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among Iranian university students. *Brain and Behavior*, e32448.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erntsen, D., & Rubin, D. C. (2006).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 A measure of integrating a trauma into one's identity and its relation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 44(2), 219-231.
- Creamer, M., Burgess, P., & Pattison, P. (1992). Reaction to trauma: A cognitive processing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52-459.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Currier, J. M., Holland, J. M., & Neimeyer, R. A. (2006). Sense-making, grief, and the experience of violent loss: Toward a mediational model. *Death studies*, 30(5), 403-428.
- Currier, J. M., Holland, J. M., Rozalski, V., Thompson, K. L., Rojas-Flores, L., & Herrera, S. (2013). Teaching in violent communities: The contribution of meaning made of stress on psychiatric distress and burnout.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20(3), 254-277.
- Davis, C. G., Nolen-Hoeksema, S., & Larson, J. (1998). Making sense of loss and benefiting from the experience: Two construals of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61-574.
- Derogatis, L. R. (2001). *Brief Symptom Inventory (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Minneapolis, MN: NCS Pearson.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 Foa, E. B., & Rothbaum, B. O. (1998). *Treating the trauma of rape: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PTS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Forbes, D., Alkemade, N., Hopcraft, D., Hawthorne, G., O'Halloran, P., Elhai, J. D., ... & Lewis, V. (2014). Evaluation of the Dimensions of Anger Reactions-5 (DAR-5) Scale in combat veteran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8(8), 830-835.
- Gauer, G., Souza, J. Á. D., Silveira, A. M. D., & Sediya, C. Y. N. (2013). Stressful events in autobiographical memory processing: Brazilian version of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 *Psicologia: Reflexão e Crítica*, 26, 98-105.
- Gillies, J., & Neimeyer, R. A. (2006). Loss, grief, and the search for significance: Toward a model of meaning reconstruction in bereavement.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9(1), 31-65.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olland, J. M., Currier, J. M., Coleman, R. A., & Neimeyer, R. A. (2010). The integration of stressful life experiences scale (ISLES):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new mea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7(4), 325-352.
- Howard, L. M., Trevillion, K., & Agnew-Davies, R. (2010). Domestic violence and mental health.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22(5), 525-534.
- Janoff-Bulman, R. (1989). Assumptive worlds and the stress of traumatic events: Applications of the schema construct. *Social cognition*, 7(2),

- 113-136.
- Joseph, S., & Linley, P. A. (2005). Positive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n organismic valuing theory of growth through adversit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3), 262-280.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 Kline, P. (2013).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Routledge.
- Milman, E., Neimeyer, R. A., Fitzpatrick, M., MacKinnon, C. J., Muis, K. R., & Cohen, S. R. (2019). Prolonged grief and the disruption of meaning: Establishing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6(6), 714-725.
- Neimeyer, R. A. (2006). Widowhood, grief and the quest for meaning. *Spousal bereavement in late life*, 227-252.
- Neimeyer, R. A., Testoni, I., Ronconi, L., Biancalani, G., Antonellini, M., & Dal Corso, L. (2021). The integration of stressful life experiences scale and the inventory of complicated spiritual grief: The Italian validation of two instruments for meaning-focused assessments of bereavement. *Behavioral Sciences*, 11(11), 149-161.
- Pan, J. Y., Fu Keung Wong, D., Chan, K. S., & Lai Wan Chan, C.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inese making sense of adversity scale: Acculturative stressors as an exampl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8(5), 479-486.
- Park, C. L. (2010). Making sense of the meaning literature: An integrative review of meaning making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Psychological bulletin*, 136(2), 257-301.
- Park, C. L., & Helgeson, V. S. (200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Growth following highly stressful life events-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791-796.
- Pitman, A., Osborn, D., King, M., & Erlangsen, A. (2014). Effects of suicide bereavement on mental health and suicide risk. *The Lancet Psychiatry*, 1(1), 86-94.
- Prigerson, H. G., Horowitz, M. J., Jacobs, S. C., Parkes, C. M., Aslan, M., Goodkin, K., ... & Maciejewski, P. K. (2009). Prolonged grief disorder: Psychometric validation of criteria proposed for DSM-V and ICD-11. *PLoS medicine*, 6(8), e1000121.
- Rhyne, L. C., Teagarden, M. B., & Van den Panhuyzen, W. (2002). Technology-based competitive strategies: The relationship of cultural dimensions to new product innovation. *The Journal of High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13(2), 249-277.
- Robinaugh, D. J., & McNally, R. J. (2011). Trauma centrality and PTSD symptom severity in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4(4), 483-486.
- Rosen, C. S., Drescher, K. D., Moos, R. H., Finney, J. W., Murphy, R. T., & Gusman, F. (2000). Sixand ten-item indexes of psychological distress based on the symptom check list-90. *Assessment*, 7(2), 103-111.
- Seo, J. G., & Park, S. P. (2015). Validation of



- 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and GAD-2 in patients with migraine. *The journal of headache and pain*, 16(1), 1-7.
-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 Löwe, B. (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0), 1092-1097.
-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rimary Care Study Group. (1999).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Jama*, 282(18), 1737-1744.
- Stiles, W. B., & Angus, L. (2001). Qualitative research on clients' assimilation of problematic experiences in psychotherapy. *Psychological Test and Assessment Modeling*, 43(3), 112-204.
- Sveen, J., Bondjers, K., Heinsoo, J., & Arnberg, F. K. (2020).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wedish version of the prolonged grief disorder-13 (PG-13) in a bereaved mixed trauma sample. *Frontiers in Psychiatry*, 122-129.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Ugwu, L. I., Onu, D. U., Nnadozie, E. E., & Iorfa, S. K. (2021). Psychometric validation of the centrality of events scale in a Nigerian clinical sample. *Journal of Psychology in Africa*, 31(2), 167-176.
- Van der Kolk, B. A., & Van der Hart, O. (1991). The intrusive past: The flexibility of memory and the engraving of trauma. *American imago*, 48(4), 425-454.
- Vermeulen, M., Smits, D., Boelen, P. A., Claes, L., Raes, F., & Krans, J. (2019). The Dutch version of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 (C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6(2), 361-371.
- Weathers, F. W., Blake, D. D., Schnurr, P. P., Kaloupek, D. G., Marx, B. P., & Keane, T. M. (2013). The life events checklist for DSM-5 (LEC-5). *National Center for PTSD*.
- Williams, H., Skalisky, J., Erickson, T. M., & Thoburn, J. (2021). Posttraumatic growth in the context of grief: Testing the mindfulness-to-meaning theory. *Journal of Loss and Trauma*, 26(7), 611-623.

원 고 접 수 일 : 2022. 03. 28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6. 02  
계 재 결 정 일 : 2022. 06. 30

## **An Exploratory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gration of Stressful Life Experience Scale (K-ISLES)**

**Dong Hun Lee**

**Hee Jun Um**

**Deok Hee Lee**

Department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Master's Degree

Ph.D. Candid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gration of Stressful Life Experience Scale (K-ISLES) in Korea.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874 Korean adults (655 with traumatic event experiences and 1,219 with bereavement experienc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a one-factor structure. Second, K-ISLES showed robust internal consistency and Omega reliability. Third, to confirm the validity of K-ISLES, correlation analysis with 'Sense-Making', 'Benefit-Finding', 'CES', 'World Assumptions Scale', 'BSI-18', 'SCL-10-R', and 'PG-13' was perform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K-ISLES has adequate psychometric properties for measuring the meaning of Korean adults exposed to traumatic events and bereavement.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Traumatic events, Bereavement, Korean Validation, ISLES, Meaning-making*